

“보여요, 정말 잘 보입니다” 캄보디아 아동센터 환호성

로터스월드 7년만에 '1000번째' 무료 개안수술

“보여요, 정말 잘 보입니다. 여기 날 찍고 있는 카메라도 잘 보여요.” 지난 23일 캄보디아 시엠펙에 위치한 BWC 아동센터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눈 모두 심각한 백내장으로 인해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티프롬(43)씨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티프롬 씨(오른쪽).

전날까지만 해도 부축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조차 힘들어했던 그녀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동공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었고 눈 바로 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이런 상태가 된지 벌써 1년째다. 수술을 받은 22일만 해도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했던 그는 다음날 안대를 풀자마자 입을 벌려 크게 웃었다. 검은색을 되찾은 눈동자로 여기 저기를 쳐다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해냈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티프롬 씨의

환치를 축하했다.

이날 티프롬 씨의 수술 성공이 더욱 뜻 깊은 것은 1000번째 무료개안수술 환자이기 때문이다. 국제구호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와 국내 최대 규모 안과전문병원인 김안과병원(병원장 김용란)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무료로 백내장수술을 진행해왔다. 불과 7년 만에 1000번

째 수술을 성공한 두 단체는 이날 조촐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주민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이같은 기쁨 속에는 안타까움도 자리했다. 오른쪽 눈은 수술로 성공적으로 완치됐지만 왼쪽 눈은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티프롬 씨는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은 “김안과병원이 보이지 않는 1000명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행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하더라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 당장 함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바로 김안과병원은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11면

캄보디아 시엠펙=김하영 기자



종단차원 전통 불복장의식 ‘첫 시연회’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7월9일 '불교 무형문화유산 의미' 조명

불상에 숨을 불어넣는 중요한 불교의식으로 그동안 비밀리에 전수돼 온 전통 불복장 의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펼쳐진다. 대한불교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무관스님)는 오는 7월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오후1시부터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시연회'를 연다.

불복장 의식은 불상이나 불화 등이 법당에 봉안되기 전에 예배와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시

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의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복장 물목(오곡, 오향, 오길상초 등 100여 가지)이 소박해지고 절차가 약소해지는 등 변화가 일어났으며, 스님에 따라 후렴통(복장을 넣는 통) 형태 및 제작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끌어질 위기에 처한 불복장 의식의 맥을 잇기 위해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발족했다. 이번 시연회는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의식의 통일안 마련과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연회는 3시간여 동안 불상의 오장육부를 채우는 복장의식과 정신을 깨우는 점안의식으로 진행된다. 의식을 전문적으로 설명해온 조계종 법계위원 무관스님을 비롯해 심향사 주지 성오스님, 복암사 주지 도성스님,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경암스님 등이 법사를 맡아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 물목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인경(印經) 시연도 실시한다.

회장 무관스님은 “불상을 조성하

고 생명을 불어넣어 예경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많은 이들이 그 심오함을 알지 못하고 의식이 어떠한 절차로 거행되지 않아 우려된다”며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 지닌 의미와 과정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불교문화재단 구소는 “이번 불복장 시연회는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존회는 오는 9월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식 실행자의 전승계보 및 실행환경, 불복장의 출토현황과 시대적 변천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시연회는 조계종 문화부가 후원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잘 먹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의례위원장 인목스님
교육아사리 포럼서
'시간대별 염불' 제안

영어권 사람들은 예상치 못하게 놀랐을 때 '오 마이 갓(Oh my God)'을 외친다. 한국사람 다수는 '엄마야가 익숙하다. 그렇다만 불자들은 어떻게.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스님)이 일상에서 염불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장에서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열린 교육아사리포럼이 그것이다. 이날 조계종의례위원장 인목스님, 교육아사리법상스님(교과연구실장)과 정운스님, 이상운 정우서적 대표가 발제자로 나와 생활 속에서 염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표가 뚜렷해야 염불생활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왜 염불을 하느냐에 따라 염불이 수행이 되고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염불정진을 통해 삼매를 체득하고, 현세에 정도를 구현하거나 사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 수행화가 돼야 일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염불은 구복을 비는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스님은 “다수의 재가자들을 보면 염불이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것 같다”며 “제야와 마장을 막아내거나 바라는 바를 구하는 수단으로 멈춰있다 보니 염불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극하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극복되거나 좌절되면 염불을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수행이 단절되는 것이다.

염불수행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님은 시간대별 염불을 제안했다. 자고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가

지 과정에서 염불을 하는 것이다. 공양을 시작하고 끝날 때, 운전할 때, 업무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짧막한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나 ‘마하반야바라밀’ 하는 정도로 짧은 의식이어야 한다.

스님은 “이슬람교들이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듯이 불자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염불을 할 수 있다”며 “복잡하거나 장황한 의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간편한 주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아내거나 바라는 바를 구하는 수단으로 멈춰있다 보니 염불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극하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극복되거나 좌절되면 염불을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수행이 단절되는 것이다.

어현경 기자

현등사 사리·장엄구 첫 공개

171가지 국보·보물
'열반과 사리신앙' 특별전

2006년 삼성문화재단에서 회수해 온 현등사 사리와 장엄구가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스님)은 '열반 궁극의 행복'을 주제로 오는 7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2014 사리신앙 특별전'을 개최한다.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1일 오전10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했던 현등사 사리에 대한 이운의식도 거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500년 전 백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보물 제176호), 세계 최고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 진본과 불



가평 현등사 사리 및 사리장엄구.

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6호), 우리나라 최초 불상복장인 전 산형 석남암사지 납석제사리호(국보 제233호) 등을 비롯해 예전 문용사 팔상도, 불설가삼부불반열반

경,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71건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화법스님은 “이번 전시는 박물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남긴 진신사리는 지금까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사회로 회향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불상이나 불화에 봉안된 복장물은 당시대를 진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지면안내

‘전통문화 외교사절’ 금정총림 범어사	4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은 ...	10면
여름방학 때 갈만한 템플스테이 사찰	12면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이 사람이!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특성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들림 없이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불광산사 범종(중량 6700관)

● 전 시 간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 이 트 : www.sungjongsas.com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사(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